외대학보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74호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발행인 박정운 /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 편집장 장래산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기획] 》 5면
졸업 요건

[심층] 》 7면
청년 정책 토론회

[사회] 》 8면
불매 운동

[인물] 》 12면
한해원 바둑기사를 만나다

학교를 덮친 예산 부족, 재정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선

우리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재정난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학교 재정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 재정난의 여파△우리학교 재정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우리학교 태국어과·태국어통번역학과, 2022 태국문화예술제 개최해

지난 1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주한태국대사관△주한태국문화원의 후원 아래 우리학교 태국어과와 태국어통번역학과가 주관한 '2022 태국문화예술제'가 개최됐다. 본 예술제는 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학과 소속감을 높이고 전공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예술제는 △전국대학생태국어경시대회△태국문화예술제△태국어 원어 연극△태국학·라오스학 학술제 등 태국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국대학생태국어경시대회 말하기 부문에 참여한 이주영(아시아·태국어 21) 씨(이하 이 씨)는 "△교수△심사위원△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분위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며 "△대본 수정△발음교정△태도 등에 대해 밤낮없이 지도해준 학과 교수님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경은 우리학교 태국어과 학과장 교수(이하 박 교수)는 해당 행사의 향후 계획에 관해 "예술제에 학생들이 기획 단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창의적인 활동을 고안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하루에 행사를 모두 진행하는 게 아니라 태국 문화주간 등 장기 프로젝트의 형태로 행사를 즐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엔 윗추 웻차치와(이하 윗추 태국대사) 주한태국대사가 방문했다. 윗추 태국대사는 다음 해 한-태 수교 65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와 태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학교에 국내 최초의 태국문화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500,000밧(약 1,900만 원)의 후원금을 우리학교에 기증했다.

한편 우리학교 태국어과와 태국어통번역학과는 얼마 전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로 희생된 태국인 희생자 낫티차 마깨우 씨의 유족에게 △교강사△동문△학부모△학생 등 구성원과 함께 모은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 씨는 "태국어과 학생으로서 희생된 태국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명나디 기자 05nadi@hufs.ac.kr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한국-인도 2030세대 포럼 개최해

지난 4일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사업단은 '21세기 한국-인도 영(Young) 리더십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제4회 한국-인도 2030 포럼(Korea-India 2030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아미트 쿠마르(Amit Kumar) 신임 주한 인도 대사의 축사△쿠마르 투힌(Kumar Tuhin) 인도문화교류위원회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조별 토의 및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와 인도의 정서적 유대 강화와 민간 외교 확대를 지원하고 양국 협력의 밑거름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엔 우리나라와 인도의 △문화계 전문가△언론인△연구자△정치인△학생 총 4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 가지 유형의 모임으로 나뉘어 각자의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자 모임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양국 현안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화계 전문가△언론인△정치인 모임은 △디지털 시대 사회와 문화의 의미△비폭력과 세계평화△언론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각 전문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교환했다. 학생들로 이뤄진 모임에선 △2030세대 가치관의 변화 양상△21세기 우리나라 내 인도 소프트파워(Softpower)의 등장과 전망△21세기 인도 내 한류의 등장과 전망에 대해 한국-인도의 가치관 비교와 한국-인도 관계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교환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우리학교 인도연구소가 수행 중인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5대 전략 사업 중 지역 전문가 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우리학교 인도연구소는 '인도의 대전환과 인도학의 한국적 재해석: 인도 지역연구의 세계적 거점 구축(Great Transition in India: A Korean Perspective on Indian Studies)'이란 사업 목표 아래 인도의 인문자산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재해석을 목표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한국외대 서울 학생상담센터에서
또래상담이 필요한
외대인을 찾습니다!

또래상담자는 총 10시간의 상담교육을 이수한 한국외대 학생들로,
본 프로그램은 상담기술과 상담자 개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학우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대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TUDENT COUNSELING CENTER

신청대상: 또래상담이 필요한 한국외대 학우라면 누구나
진행방식: 신청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담자와 1:1 매칭, 개별 연락 후 상담 진행
신청기간: 2022학년도 2학기 중 상시모집
신청방법: 상단 QR코드 인식/하기 링크 접속 후 구글폼 작성
https://forms.gle/6KS9Eu7tafMG8GSJ8
문의: 02-2173-2562. sccs@hufs.ac.kr
(국제학사 345호 학생상담센터)

우리학교 GTEP 사업단, 베트남과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전시 행사 참여해

우리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 사업단)이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간 프랑스 파리(Paris)의 파리 노르 빌팽트(Paris Nord Villepinte) 전시장에서 열린 '파리 국제 식품박람회(이하 SIAL)'와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Hanoi)에서 열린 '2022 K-박람회 베트남'(K-EXPO VIETNAM 2022)에 참가했다.

SIAL은 프랑스의 전시 회사인 콤엑스포지움(Comexposium)이 5개 대륙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식품박람회로 일본 식품 박람회(FOODEX JAPAN), 독일 식품박람회(ANUGA)와 함께 세계 3대 식품박람회로 꼽힌다. 과거 두 해마다 개최됐던 SIAL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엔 126개국 약 7,000여 개 업체에서 파견된 30여만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우리학교 GTEP 사업단은 행사에 참여해 마케팅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어에게 맞춤 제품을 추천하는 등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우리학교 GTEP 사업단원인 김세연(경상·국금 20) 씨(이하 김 씨)와 차주희(서양어·프랑스 18) 씨는 협력업체 '옥두식품'의 주력 상품인 '광석이네 모차렐라 치즈 핫도그' 외 3종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다. 김 씨는 "전시회 참가 외에도 시장조사나 바이어 응대 등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현지 문화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 전시 행사에 참여한 우리학교 GTEP 사업단(출처: 우리학교 전략홍보팀)

'2022 K-박람회 베트남'은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등 우리나라 5개 정부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종합 한류 박람회다. 박람회엔 △더핑크퐁컴퍼니△오로라월드△CJ ENM 등 39개 콘텐츠 기업을 포함해 총 109개의 한류 연관 기업이 참여했다. △B2B(Business to Business)수출상담회△B2C(Business to Consumer)전시체험관△K-EXPO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주현(서양어·독일어 20)(이하 박 씨) 우리학교 GTEP 사업단원은 젓갈을 제조하는 식품·유통 기업인 '동화푸드'와 협약을 맺어 이번 전시에 참가했다. 박 씨는 "대학생 신분으론 쉽게 경험하기 힘든 해외 박람회 파견이기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행사 과정에 임했다"며 "우리나라와 베트남 바이어의 중국 현지 시장 선호도와 가격대의 차이 등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지식을 배웠다"고 밝혔다.

한편 GTEP 사업단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사업단이다. 우리나라 청년을 대상으로 약 15개월간 480시간 이상의 △온라인 해외 마케팅 실습△무역 실무△전시회 참가△전자상거래△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현장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학교 GTEP 사업단은 △북미△아시아△유럽△중남미 등 4개 권역에 특화돼 있어 각 지역별로 높은 전문지식을 갖춘 무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제2회 CFL 대사포럼 개최해

지난 10일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은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문화 교류와 특수외국어(CFL, Critical Foreign Languages)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 CFL 대사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특수외국어 언어권 국가들과 국내외 연결망을 공고히 하고 특수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럼에선 국내 특수외국어 교육 확산과 교류 방안을 모색했으며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문화 교류△특수외국어의 역할△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엔 △브라질△오만△이탈리아△인도△탄자니아△튀르키예 등 13개국의 대사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포럼의 식순은 △개회식△개회 공연△각 지역 대사 연설△중간 공연△질의응답△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감각과 소양을 갖춘 우수한 외국어 전문 인재를 창출하는 교육 연결망의 중심에서 우리학교가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은구 특교원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13개 국이 참여한 이번 포럼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국내 특수외국어교육을 확산시키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제2회 CFL 대사포럼 (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개회 공연과 중간 공연에선 우리학교 △아프리카학부△태국어과 및 △인도어과△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학생들이 각 국가의 전통춤을 선보였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우종진 우리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학과장 교수(이하 우 교수)는 해당 공연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 및 예술 등을 고루 학습하고 있단 교육적 경쟁력을 보여준다"는 소감을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엔 우리학교 학생들과 참여국 대사들 간의 소통이 이뤄졌다. 포럼에 참여한 유종현(국제지역·인도 22) 씨는 "특히 본인의 전공어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학우가 인상 깊었다"며 "CFL 대사포럼은 특수외국어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한편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은 △국가부처와의 협업△대국민 서비스 확대△전문 인재 양성 등 다각도로 확대될 계획이다. 우 교수는 향후 열릴 포럼에 대해 "앞선 두 번의 대사포럼을 통해 특수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인지도를 확산했다면 앞으론 더욱 많은 전문가를 초청해 실무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포럼을 구성하고자 한다"는 향후 계획을 전했다.

명나디 기자 05nadi@hufs.ac.kr

우리학교 KFL학부 재학생, 외국인 한글 글씨쓰기 대회에서 입상해

우리학교 KFL학부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제23회 외국인 한글 글씨쓰기 대회'에 참여했다. 해당 행사는 한글 창제의 참뜻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매해 열리고 있으며 이번 해 우리학교 KFL학부는 이 대회에서 총 6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과거엔 대회 참여자들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방문해 오전에 백일장을 진행하고 오후에 시상을 하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대회의 진행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고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23회 외국인 한글 글씨쓰기 대회 시상식 (출처: 우리학교 KFL 학부)

이번 대회에 참가한 KFL학부 학생들은 △은상 1명△장려상 1명△입선 4명의 성적을 거뒀다. 은상을 수상한 미츠야 마리카(三矢まりか)(KFL 22)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글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며 "한글을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모양에 대해서도 깊이 관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입선을 기록한 송신(宋宸)(KFL 19) 씨는 "열심히 임한 대회에 입선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 대회에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효원 KFL학부 교수(이하 서 교수)는 "대회를 통해서 KFL학부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 형성과 언어 습득에 관한 동기 부여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훗날 우리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긍정적으로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한국어 경연 대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마련된 한국어 경연 대회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대회가 유일하다"며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나디 기자 05nadi@hufs.ac.kr

우리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고교학점제 MOU 체결해

지난 9일 우리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도교육청과 고교학점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등학교 내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식엔 우리학교를 대표해 △강기훈 산학연계부총장(이하 강 산학연계부총장)△엄용국 입학총괄팀장△정석오 입학처장이 참석했으며 제주도교육청 대표로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하 김 교육감)△강승민 학교교육과장△서자양 교육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교학점제 사업 발굴 및 운영△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기타 협력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과 교원에게 전공 관련 심화 학습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진로 설계를 위한 과목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리학교는 협약에 따라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전문교과 강사 지원△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고등학교 대상 맞춤형 진로 체험활동 제공 등의 사안에 대해 제주도교육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강 산학연계부총장은 "앞으로 우리학교는 제주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여름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가 개설한 교원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교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한국외대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고등학교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신라대학교△제주관광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 또한 제주도교육청과 고교학점제 MOU를 체결했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모집(전형)일정

구 분	1차모집	2차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및 서류접수	원서작성: 2022. 9. 27(화) ~ 10. 6(목) 서류접수: 2022. 9. 27(화) ~ 10. 7(금)	원서작성: 2022. 11. 15(화) ~ 11. 24(목) 서류접수: 2022. 11. 15(화) ~ 11. 25(금)
면접 전형일	2022. 10. 22(토)	2022. 12. 10(토)
합격자 발표	2022. 11. 4(금)	2022. 12. 23(금)
등록예치금 납부	2022. 11. 7(월) ~ 11. 15(화)	2022. 12. 26(월) ~ 2023. 1. 3(화)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지원자격

◎ 석사학위과정
가. 학사학위 취득자 및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박사학위과정
가. 석사학위 취득자 및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석사 · 박사통합학위과정
가. 학사학위 취득자 및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학과 및 전공관련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
*지원전공 관련 실무경험자 및 해당지역 어학 성적표 제출자 우대

◎ 공통사항
가. 본 전형의 응시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 외국인임
나. 국제지역 전문요원 또는 국제지역 관련 전문분야의 학문적 능력과 연구 및 실무경력자 우대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접수방법
· STEP1 – 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모집과정 및 학과/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gsias.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특 징
◎다양한 장학금 제도
가. 한국학과 외국인을 위한 학비감면제도 (입학 시 선발)
나. KIEP 장학금(인도, 중동 · 아프리카, 러시아 · CIS, 중남미지역 전공자 대상, 입학 후 학과별 기준에 따라 선발)
다. 신입생 입학성적에 따른 장학금 지급 (입학 후 지급)
라. 재학 중 성적에 따른 장학금 지급
마. 기타 국제지역장학금, 외부협력사업 조교 등 다양한 학비지원 제도 운영
◎ 비논문트랙 운영 :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없이 전공학점 추가 이수로 졸업가능(비논문트랙 운영여부는 학과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 유엔평화대학 이중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추후 학과결정에 따라 이중학위 프로그램 참여 학과는 추가될 수 있음
◎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입시문의
02)2173-2448, 2449
홈페이지 : 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불명확한 계절학기 강의 개설 기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절학기를 위해선

매해 계절학기 강좌 개설 시기가 다가오면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계절학기 강의 개설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학과마다 상이하단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실제로 이번 여름학기 기준 우리학교 양 캠퍼스(이하 양캠)에 있는 세부전공을 포함한 총 153개의 학과 중 37개의 전공만이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했다. △우리학교 계절학기 강의 개설 현황△계절학기 강의 개설에 놓인 문제△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계절학기 강의 개설 현황

지난 17일 에타에 계절학기 강의 개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계절학기 개설이 되지 않아 추가 학기를 들어야 한단 내용이었다. 해당 게시글은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받으며 계절학기 강의 개설에 관한 문제를 환기시켰다. 이처럼 계절학기 시기가 다가오면 해당 문제에 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계절학기 강의 개설을 위해 매 학기 양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 희망 교과목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조사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며 실제 강의 개설 여부는 학과의 선택에 맡긴다. 이에 따라 학과는 계절학기 수요조사 결과와 학과의 상황을 고려해 계절학기 강의를 자율적으로 개설한다. 지난 여름학기 기준 우리학교 양캠 세부전공을 포함한 153개의 전공 중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한 전공은 37개뿐이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75개의 전공 중 △경영학부△경제학부△국가리더전공 등 26개의 전공이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했으며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선 77개의 전공 중 △공과대학(공통)△국제금융학과△사학과 등 11개의 전공에서 강의가 개설됐다. 설캠의 전공 중 19.5%, 글캠의 전공 중 8.5%만이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것이다.

과 EU융합전공의 경우 지난 여름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했으나 신청 인원과 실제 수강 인원이 적어 강의가 폐강됐다. 이외에도 특수한 사정으로 계절학기를 개설하지 못한 학과도 존재한다. 태국어과의 경우 계절학기 수업을 맡을 교원이 부족해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단 입장을 전했다. 3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융합인재학부는 학생마다 모듈에 따라 이수 과목이 다르기 현실적으로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GBT 학부의 경우 현재 설캠의 △경영학부△경영학전공△경제학부△경제학전공△국제통상학과의 일부 강의를 통해서만 계절학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경영△영어△프로그래밍 3개의 분야를 다루는 융합전공이지만 계절학기 신청 인원이 많아도 강의가 개설되지 않아 경영과 관련된 강의만 수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예진(경상·GBT 20) 씨는 "GBT 학부의 전공엔 프로그래밍 강의도 있으나 계절학기 때 해당 강의를 이수하기 힘들다"며 "경영 관련 강의 또한 설캠의 학부들과 커리큘럼이 상이하기에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절학기 대체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름학기 기준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한 학과		
캠퍼스	학과	총 합계
서울	△경영학부△경영학전공△경제학부△경제학전공△광고 · PR · 브랜딩전공△교육학△국가리더전공△국제통상학과△독일어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방송 · 영상 · 뉴미디어전공△스페인어과△영미문학 · 문화학과△일본언어문화전공△정치외교학과△중국언어문화전공△중국언어문화학부△중국외교통상전공△중국외교통상학부△차이나데이터큐레이션전공△철학과△프랑스어학부△한국어교육과△행정학과△EICC학과△EU전공	26 (총 75)
글로벌	△공과대학(공통)△국제금융학과△사학과△스페인어통번역학과△영어통번역학부△일본어통번역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철학과△컴퓨터공학전공△통계학과△EU전공	11 (총 77)

▲지난 여름학기 기준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한 학과

◆계절학기 강의 개설에 놓인 문제들

학생들은 전공 공부와 학점 이수 등의 목적으로 계절학기 강의 개설을 희망한다. 황찬일(국제지역·프랑스 18) 씨(이하 황 씨)는 "방학 때도 계절학기를 수강해 전공 과목을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방학 중 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선 전공 과목의 계절학기 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해 1학기 교환학생을 예정 중인 김종필(아시아·마인어 21) 씨(이하 김 씨)도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계절학기 강의가 없을 시 그 학기에만 열리는 수업을 들을 수 없어 추가학기를 다녀야 한다"며 "계절학기를 통해 전공 과목의 추가 학점을 이수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계절학기 강의 개설이 불가능한 데에도 학과마다 각기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총 수강인원이 적은 융합전공과 특수외국어학과의 경우 계절학기 수요조사 참여 인원이 적어 강의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스칸디나비아어과△브릭스(BRICs)전공 등 융합전공과 특수외국어학과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에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할 경우 수강인원이 보장되지 않아 폐강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언어문화학부의 세부 전공인 차이나데이터큐레이터전공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몇몇 학과에선 방학 중에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제 △인도학과△인도어과△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태국어과△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폴란드어과 등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방학 중 집중이수과정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학점 교류△다른 대학교와의 학점 교류△하계 방학 단기연수 등 대안을 마련해 계절학기 학점 인정을 돕고 있다. 이외에도 △방학 중 전공 학습 강의 제공△학과 자체 전공 관련 방학 중 이수프로그램 진행△학과 내 학회 연구 등을 통해 계절학기 강의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에 전공을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계절학기 강의가 부족하단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순 없단 의견이 존재한다. 학생들은 △계절학기를 통한 재수강 학점 수강△방학 중 전문성 있는 전공 공부를 위한 전공 강의 수강△전공강의 수강을 통한 졸업 학점 충족 등을 이유로 계절학기에 전공강의를 개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의 경우 여름 계절학기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와의 연계를 통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여름 계절학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허유진(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이러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방학 중 전공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계절학기에 전공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긴 힘들다"며 계절학기 강의 개설을 위해 학과 측의 노력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과간 존재하는 계절학기 강의 개설의 차이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계절학기 강의 개설 기준을 공개해야 한단 목소리가 존재한다. 황 씨는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불만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다"며 "각 학과는 계절학기 미개설 이유를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종지의 수요조사 결과 일정 수를 넘는 학생이 강의 개설을 희망할 시 계절학기 강의를 필수로 개설해야 한단 의견도 존재했다. 유승리(공과·컴전 20) 씨는 "계절학기 강의 개설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전 각 학과는 계절학기 강의 개설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강의 개설에 필요한 인원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충족할 시 필수적으로 계절학기를 개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대학에서도 계절학기 강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성결대학교(이하 성결대)의 경우 계절학기 강의 개설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 최소 수강신청 인원수를 미리 지정해 강의를 개설한다. 성결대에선 수강신청 인원이 △교양과목 10명△전공과목 5명△채플 15명 이상인 경우 필수적으로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강의 수강을 희망할 경우 교수와 합의하에 1인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청원과목개설제도'를 시행해 학생들의 방학 중 전공 강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계절학기 개설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절학기 강의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가 이어져야 할 때다.

나리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학교를 덮친 예산 부족 문제, 재정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선

이번 달 1일 글로벌캠퍼스 제43대 총학생회 '외대의 봄'은 재정난으로 인해 인상한 계절학기 등록금을 감축하란 요구를 담은 학생총투표를 실시했다. 이처럼 우리학교는 과거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과의 대립을 이어온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곧 학내 구성원의 권리 및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학내 구성원에게 재정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단 주로 재정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학교 재정난의 여파△우리학교 재정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재정난의 여파

지난 5월 진행된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생들의 요구안에 대해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을 포함한 우리학교 교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내 시설 개선△등록금 부담 완화△장학금 예산 확충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교직원은 모든 답변의 말미에 '미흡한 재정적 여건'을 이유로 학생들이 요구한 가시적인 변화를 이른 시일 내에 이뤄내기 어렵단 뜻을 내비쳤다. 박 총장 또한 1인당 장학금 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좋지 않은 우리학교 재정 속에서 장학금을 인상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요구안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교내 시설 개선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도 재정 문제가 다시금 강조됐다. 학생들은 △교내 체육시설 보수△노후한 라디에이터 교체△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봉철 우리학교 행정지원처장은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단 뜻을 전했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겠다"며 예산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현성민(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학교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단 예산 문제를 빌미 삼아 학생들의 요구 반영을 미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요구안 수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산 문제는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기회 보장 및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이번 학기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의 선발 인원은 대폭 감소됐다. 우리학교 국제교류팀은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선발 인원의 감소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외대학보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과는 프로그램 선발 인원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우리학교의 재정난을 꼽았다. 이번 학기에 이뤄진 학생식당 음식(이하 학식)의 가격 상승 또한 예산 부족 문제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식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해 학식 운영에 따른 적자가 지속해서 누적됐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기부자 이름을 새긴 미네르바 클럽 월(Minerva Club Wall)

◆우리학교 재정난 발생의 원인

우리학교는 대학교가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인 △등록금△기부금△수익사업 운영△보조금 지원 등 다수의 부문에서 취약한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학교의 등록금 의존도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등록금 의존율 통계'에 따르면 사립대학교(이하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50%대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학교를 포함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내 주요 사립대 10곳의 회계결산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69.6%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교육계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70% 이상인 대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위험' 수준으로 파악한단 점을 고려할 때 70%에 육박한 등록금 의존율을 가진 우리학교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지 않단 사실을 알 수 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예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우리학교를 포함한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현재까지 등록금 동결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물가는 매해 상승하지만 등록금은 13년째 같은 가격으로 이어져오고 있어 대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급속도로 심화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학교의 등록금 동결 제한을 해제하겠단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변화 없이 등록금 동결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학교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기부금 및 후원의 규모도 다른 대학교에 비해 확연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학교를 포함한 15개의 서울시 주요 사립대가 모금한 평균 기부금은 172억 1,248만 8,063원이다. 그러나 우리학교가 공시한 '2022학년도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학교에 조달된 기부금은 15개 사립대 평균 기부금의 약 28%에 해당하는 48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의 기부금 모금은 주로 동문들에 의해 이뤄진단 점을 고려할 때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존재한다. 정지은(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동문과 학내 구성원의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전했다.

우리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수익사업의 운영 수입이 적은 편에 속한다. 다른 대학교는 △금융업△의료업△임대업△제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수익사업이 존재하지만 우리학교는 교육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주로 정부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진행하거나 외국인 대상 어학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숙사 운영△외국어종합시험 응시료△임대매장 대여료 등이 존재하지만 모두 1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수익사업이기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미미한 보조금 지원도 우리학교 재정난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정부가 대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대학교의 효과적인 성장을 돕는단 취지로 진행되기에 이공계 위주의 보조금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 2월 교육부가 공개한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서'에 따르면 인재양성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블록체인(BlockChain)△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이다. 그러나 인문학 및 어문학 중심의 학과가 많은 우리학교의 특성상 다른 대학교에 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지원 대학교 선정을 위해 이공계 관련 시설 및 해당 연구 분야의 인력 규모를 고려하는데 우리학교는 이공계에 특화된 다른 대학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해 우리학교가 정부로부터 받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은 70억 원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 이공계 특화 대학교와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어문학에 강점을 지닌 우리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은 이번 해 기준 약 16억 원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긴 어려웠다. 이번 총장과의 대화에서 박 총장 또한 "등록금 의존도를 줄이려면 다양한 재원이 확보돼야 하지만 우리학교는 인문계 중심이기에 이가 쉽지 않다"며 "이는 국가의 대학교 지원 사업이 대부분 기술 개발과 관련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학교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사립대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지난해 등록금 의존율 40% 내외를 기록한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는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사립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연세대 재정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활발한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거대 수익 창출이다. 연세대는 재단 산하 수익사업체인 '연세유업'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대학교 장학금 사업에 사용한다. 또한 수익사업을 △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화장품 등의 분야로 확장하고 관련 상품을 제조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건물 임대사업△세브란스 병원△장례식장 사업△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불교계 선각자들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의 경우 학교 특성에 맞는 기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동국대는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campaign)'을 실시했고 △교직원△동문△불교계 인사△재학생△학부모 등 1,900명이 총 24억 원을 모금했다.

학교법인의 대학교 지원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단 여론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법인이 해마다 대학교 운영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대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전입금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학교법인이 대학교에 지원하는 전입금은 원활한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따른 대학교 운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토지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다. 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 시 토지매입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은 토지 매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저수익성 토지의 용도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학알리미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 우리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약 2천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분배된 전입금은 약 27억 원으로 한양대학교와 같이 수백억 원의 전입금을 받는 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작은 지원 규모를 보였다. 이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영남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전입금은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상 대학교에 전입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적 안정을 바탕으로 학내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졸업 요건, 학생과 학과 간의 타협점이 필요한 때

다음 해 2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 준비와 더불어 △외국어인증△졸업 논문△졸업 시험 등 졸업 준비에 힘쓰고 있다. 우리학교는 졸업 시험 및 졸업 논문 요건을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과마다 다양한 졸업 요건을 가진다. 이에 지난 6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졸업 요건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는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받았다. △우리학교 졸업 요건△졸업 요건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졸업 요건 현황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번 해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지난 2012년 66%를 기록했고 매해 꾸준히 감소해 △2018년 64.2%△2019년 63.3%△2020년 61.0%에 달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58.6%는 이번 해 대학 졸업자 신규채용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취업 준비와 함께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에타엔 졸업 요건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는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받았다.

우리학교의 졸업 요건은 크게 △졸업 이수학점△외국어 인증△졸업 시험 및 졸업 논문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졸업 이수학점은 사범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과 이중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사범대학의 경우 134학점이며 이중전공을 이수하는 사범대학의 경우는 140학점이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졸업 이수학점은 통번역대학과 융합인재대학의 경우 150학점이며 나머지 단과대학은 134학점이다. 졸업을 위해선 필수 학점 이수와 더불어 외국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외국어 인증과 관련해 1전공을 기준으로 영어 관련 전공은 △영어가 아닌 언어의 플렉스(FLEX) 시험△국가공인한자능력시험△KBS한국어능력시험 중 한 가지를 택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비영어 전공의 경우 영어로 △오픽(OPIc)△플렉스△토익(TOEIC) 중 한 가지 영역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어 인증은 설캠의 외국어연수평가원과 글캠의 외국어교육센터에서 80시간 이상의 인증 대체 교육과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졸업 이수학점과 외국어 인증은 학교 공통 졸업 요건이지만 졸업 시험 및 졸업 논문은 학과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졸업 논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플렉스에 통과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국제통상학과△국제학부△LD학부 등의 학과는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사학과△철학과△한국어교육과 등은 졸업 논문을 제출해 통과를 받아야 한다. △독일어과△스칸디나비아어과△인도어과 등 언어 관련 학과에선 플렉스가 졸업 시험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경제학부는 학부 자체 시험이 아닌 매경TEST(이하 매경) 혹은 테셋(TESAT)이 졸업 시험의 역할을 하며 LT학부는 매경 혹은 테셋으로 졸업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학과별 졸업 요건의 세부 사항이 다양한 이유는 우리학교가 학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캠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우리학교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 시행규정' 제102조에 따라 졸업 시험은 학과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행한다"며 학과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시행한 결과를 졸업 사정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글캠 학종지 또한 "우리학교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과 소속 교수들의 논의로 정해진 졸업 요건을 존중하며 이에 대해 대학 당국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교 측은 졸업 요건 기준에 있어 학과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으나 반대로 이로 인해 졸업 요건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FLEX 시험 교재

◆졸업 요건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

외국어 관련 학과에선 졸업 요건으로 일정 이상의 플렉스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설캠 △사범대학△서양어대학△아시아언어문화대학△영어대학△일본학대학△중국학대학 소속 27개의 학과 중 23개의 학과는 일정 플렉스 점수 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글캠 △국제지역대학△동유럽대학△융합인재대학△통번역대학 등 총 4개의 단과대학 소속 23개의 학과 중 17개의 학과가 플렉스 점수를 졸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플렉스는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를 묶어 시험을 치루며 일반시험과 특별시험으로 나뉜다. 일반시험은 △독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에 한하며 특별시험은 △베트남어△아랍어△체코어 등의 특수외국어에 한해 치러진다. 그러나 일반시험은 듣기와 읽기 부문에 한해서만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수외국어의 경우 해당 언어 시험 자체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언어 관련 자격증들에 비해 플렉스는 그 효력이 약하다"며 플렉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특수외국어 시험이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LEX센터 측은 "특수외국어 시험의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를 위해선 특수외국어 관련 학과와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학과의 졸업 요건을 오직 플렉스로만 규정하고 다른 자격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단 점이 문제란 목소리도 존재한다. △영어대학△영어통번역학부△융합인재학부△이탈리아어통번역학부△포르투갈어과△프랑스학과 등 소수의 학과를 제외하면 플렉스를 졸업 요건으로 규정한 대부분의 학과에선 다른 자격증으로 플렉스 자격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 이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 시험을 보유 중인 언어 전공자는 이러한 점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중국학대학 재학생 B 씨는 "중국어엔 HSK라는 공신력이 있는 시험이 존재한다"며 "HSK로 플렉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면 취업 준비 중인 졸업 대기생들에게 취업에 있어 플렉스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어△몽골어△인도네시아어 등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신력 있는 다른 자격증도 인정하잔 의견이다. 이에 일부 학과는 단순히 언어 실력에만 집중된 다른 자격증에 비해 플렉스는 해당 언어권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도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언어문화학부 관계자는 "HSK와 달리 플렉스 시험에선 중국어 실력과 더불어 중국 사회 및 세계정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며 "중국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는 중국언어문화학부의 학생은 플렉스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졸업 시험△졸업 논문△플렉스 점수 요건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중국외교통상학부와 중국언어문화학부는 졸업 논문 통과와 플렉스 점수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학과처럼 졸업 논문과 졸업 시험에 둘 다 통과해야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학과도 존재한다. 중국학대학 재학생 C 씨는 "최근에서야 중국학대학만이 졸업 논문과 플렉스를 중복으로 요구하고 있단 걸 알았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중국외교통상학부 측은 "중국외교통상학부는 다른 언어 학과와 달리 언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사회△정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지역학 기반의 학과이다"며 배운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어학 시험과 논문을 둘 다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학교의 일부 언어 학과는 해당 언어 학과의 플렉스 점수 졸업 요건을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학교 포르투갈어과의 경우 플렉스 650점 이상이란 점수 요건이 존재하나 포르투갈이 주관하는 카플레(CAPLE) 또는 브라질이 주관하는 셀피브라스(CELPE-BRAS) 시험 성적으로 플렉스 성적을 대체할 수 있다. ELLT학과의 경우는 플렉스 610점 이상이란 졸업 요건이 존재하지만 805점 이상의 토익 성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FLEX 외 다른 자격증 시험도 인정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가능성이 생겨난다.

플렉스를 우선적인 졸업 요건의 기준으로 두더라도 상황에 따라 플렉스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단 여론도 존재한다. 중국어통번역학과는 취업자의 경우 플렉스를 3번 이상 응시했단 조건으로 HSK 6급으로 대체하거나 외국어연수평가원 수업을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어과는 기준 점수와 최대 20점 차이로 점수가 미달됐을 경우에 한해 졸업 대체 과제를 받고 있다. 재학생 C 씨는 "일정 횟수 이상 플렉스 시험을 응시했음에도 통과하지 못한 학우들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실제 주변에 5번 이상 플렉스 시험을 응시한 학우들이 있고 플렉스를 통과하지 못해 기업 채용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졸업 논문과 플렉스 점수를 동시에 졸업 요건으로 두고 있는 중국외교통상학부 측은 "학우들의 고충과 학부 커리큘럼이 가지는 의의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졸업이란 4년이 넘는 재학 기간을 마치고 학교와 작별하는 과정이다.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맺기 위해 학생과 학과 간의 소통을 통해 졸업 요건에 대한 타협점을 맞춰나가야 할 때다.

김예주 기자 05yejoo@hufs.ac.kr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다시 돌아가고 싶은 튀르키예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튀르키예의 '앙카라대학교(Ankara university)' 어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우리학교에서 튀르키예어를 배우다 보니 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튀르키예에 가서 언어 실력을 쌓고 싶다고 생각했다. 막상 튀르키예에 도착한 후 2주 동안은 혼자 해결해야 할 행정 문제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튀르키예에서의 삶은 어학당에서의 시간과 어학당 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은 어학당 수업을 듣고 오후엔 주로 나만의 시간을 보냈다. 어학당에선 튀르키예어 △듣기△문법△회화 위주의 수업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다른 나라 학생들은 듣기나 회화 부분에서 자신감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법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단 것이다.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땐 모든 수업이 튀르키예어로 진행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러한 수업 방식에 익숙해졌고 튀르키예어 실력도 점차 늘어갔다. 어학당 수업이 없는 오후엔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언어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언어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튀르키예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덕분에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회화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익힐 수 있었다.

어학당 수업이 끝난 후 어학당 친구들 및 선생님과 함께 한식당에 방문해 우리나라 음식과 젓가락 사용법을 소개하며 함께 우리나라 음식을 즐겼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5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 이별했던 순간 역시 각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나라로 떠나는 날 위해 반 친구들이 선물과 파티를 준비해줬다. 처음엔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달라 소통조차 어려워 멀게 느껴지던 친구들이었지만 마지막엔 서로 튀르키예어로 대화하며 모두가 성장한 모습을 느꼈다.

튀르키예로 유학을 갈 계획이 있는 학우들에게 꼭 튀르키예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조언하고 싶다. 튀르키예는 영토가 굉장히 넓고 지역마다 매력이 다르기에 각각의 지역을 다니면서 서로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버스 체계가 잘 구성돼 있어 기차보단 버스로 여행하는 걸 추천한다. '오비렛(Obilet)'이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외버스를 예약할 수 있으며 버스 안에선 승무원이 간식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튀르키예 버스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튀르키예인들의 종교가 대부분 이슬람교이기에 버스에 모르는 남녀가 같이 앉는 게 금지된단 것이다. 따라서 버스 좌석을 예약할 때 예약자의 성별이 명시돼 있으며 가족이 아닌 남녀는 함께 앉을 수 없다. 여행을 통해 이러한 튀르키예의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

가족들과 떨어져 낯선 나라에서 생활을 할 땐 분명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욱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에 나가는 걸 주저하는 학우가 있다면 용기를 내 기회를 잡아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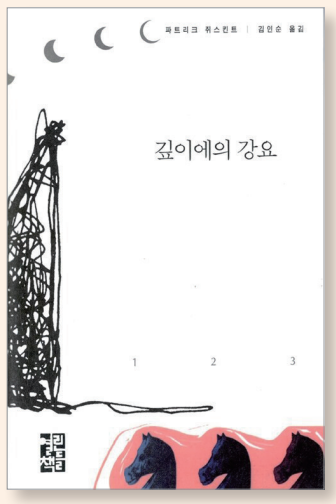
한경희(아시아 · 터키어 19)

읽어서 세계속으로

독일

<깊이에의 강요>

- 잘못된 인정 욕구와 파멸 -



이 책의 저자 '파트리크 쥐스킨트(Patrick Suskind)'(이하 쥐스킨트)는 1949년 독일 암바흐(Ambach)에서 태어나 뮌헨대학교(University of Munich)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작가로 활동해 여러 단편 소설을 썼으며 1984년에 출간된 작품 '콘트라베이스'를 통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1985년에 출간된 소설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는 쥐스킨트의 여러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찬사를 받은 책으로 꼽힌다. 이 작품은 2,000만 부 이상의 판매기록을 달성했으며 2006년 영화화되기도 했다. 쥐스킨트는 독일어 언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이지만 △구텐베르크 문학상△투칸 문학상△F. A. Z 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 수상을 거부하고 인터뷰와 사진 찍히는 일조차 피하며 오직 작품을 통해서만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1995년에 출간된 단편집 '깊이에의 강요'는 총 4편의 짧은 단편으로 구성돼 있다. △깊이에의 강요△승부△장인 뮈사르의 유언△문학의 건망증은 우리의 삶에 항상 존재하는 가벼우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를 우회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중 '깊이에의 강요'는 여섯 쪽 정도의 짧은 글이지만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긴 시간 동안 곱씹어보게 만든다. 소설 속 실력 있는 젊은 화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깊이가 없다'고 말한 한 평론가의 평가로 인해 좌절한다. 화가는 깊이를 갖기 위해 여러 서적을 읽고 다른 작가의 예술 작품을 연구하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깊이를 찾아내는 데 실패한다. 더 이상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화가는 스스로 삶을 끝낸다. 이 소식을 접한 평론가는 그제야 그녀의 작품 속에 깊이가 보인다고 평가하며 책은 마무리된다. 깊이가 없단 평론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 화가가 죽고 난 이후에야 똑같은 작품에 의미와 깊이를 부여하는 평론가의 모습은 모순적이고 슬프기까지 하다.

이 짧은 소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불안△말이 가지는 힘△잘못된 인정 욕구란 여러 주제를 독자에게 던져준다. 우린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의 평가를 마주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쉽게 떨쳐지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일정 수준의 인정 욕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와 말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잘못된 인정 욕구는 소설 속 화가의 삶처럼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다. 깊이에의 강요를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는 인정 욕구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10.04(화) ~ 10.14(금)	2022.11.14(월) ~ 11.25(금)
고사장 발표	10.20(목) 15:00	12.01(목) 15:00
면접전형	10.22(토) 10:00 예정	12. 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03(목) 15:00	12.1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7(월) ~ 11.11(금)	12.19(월) ~ 12.23(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 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앞으로 청년 정책의 행보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와 대학 연합 독서토론 동아리 'SOCIETY 451'(이하 SOCIETY 451)이 공동기획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가 펼쳐졌다. 해당 토론회에서 청년 토론자들은 김동연 도지사(이하 김 도지사)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인 반값 주택과 창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반값 주택과 창업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해 상반기 기준 만 15세이상 만 29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5.1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것이다. 특히 만 15세이상 만 29세 이하인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40대의 2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높게 집계된 건 본래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하던 청년 취업난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맞물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분석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며 청년들의 부채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단 분석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29세 이하 가구주인 청년층의 부채 증가율은 48.3%로 전체 부채 증가율인 24%의 2배에 달했다. 청년들의 부채 증가율이 상승한 건 증시·부동산 활황기에 과도한 빚을 내 투자하거나 집을 매수해 채무 부담을 크게 느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주거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해 김 도지사가 토지 임대부 주택의 일종인 반값 주택과 창업 지원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또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했다.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인 행복주택이 실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이 존재하지만 수요를 충족할 만큼 이뤄지진 않고 있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방안'을 통해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과 소형의 저렴한 주택 부족은 청년층의 거주 불안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시에선 마곡산업단지 내 서울창업허브 플러스를 개설하기 시작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지하고 있으나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엔 아직도 부족하단 지적이 존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7년에 발표한 '20대 청년창업의 과제와 시사점'에 의하면 청년창업엔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치우친 현실과 금융 접근 기반이 취약한 현실이 문제로 존재한다.

◆토론회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생각은?

주거 정책과 일자리 문제가 청년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른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 12일 경기도와 SOCIETY 451이 공동 개최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선 반값 주택 지원과 청년 창업 지원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엔 △송도윤(대학연합동아리 '한앎' 소속) 씨△장예령(명지대학교 재학생) 씨△정석훈(단국대학교 졸업생) 씨△손영승(대학연합토론동아리 '한앎' 소속) 씨가 패널로 참가했다. 주거 정책에 관한 토론은 강지수 경희대학교 스피치토론동아리 이감 회장의 반값 주택 시행 여부에 대한 발제로 토론회의 1부가 시작됐다.

반값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무주택자에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시세의 50%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 혹은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정책을 뜻한다. 반값 주택 시행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청년층 소외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이번 해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주거취약 청년가구는 전체 가구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비 대비 대출 비율 또한 17.2%로 전체 가구가 16.6%인 데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단 것이 반값 주택을 시행해야 한단 근본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반값 주택 시행에 반대하는 측은 반값 주택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으로 그 가치가 책정된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토지를 임대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청년들이 반값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반값 정책의 골자다. 그러나 이 '반값'이란 단어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월세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단 것이다. 노대래 재정기획부 정책조정국장은 19일 의정연구센터가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반값 주택에 대해 "토지임대부주택의 일환인 반값 주택 분양 시 임대료 등을 계산하면 결국 지가의 약 95%를 청년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란 점이 지적됐다. 실제 공공 주택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중 스웨덴의 경우 현재 수용 가능 인원이 약 50만 명인 수도 스톡홀름(Stockholm)에 거주하기 위해 100만 명의 대기자가 존재해 대기 기간이 20~30년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공공 주택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오스트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기에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창업 지원 부문에선 대학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단 이제현(연세대학교 재학생) 씨의 발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김 도지사의 창업 지원 정책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모두 정책 자체에 대해선 찬성의 의견을 내비쳤으나 김 도지사가 제시한 정책에 그쳐선 안 된단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을 위한 환경 분야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창업 경쟁력 부분에서 9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Start-Up)은 소규모의 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저서 '축적의 길'에서 "아이디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과정을 버틸 역량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송도윤 씨는 "기존의 창업 독려 정책이 최근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단 의견엔 동의하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경기도가 진행하는 민간-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취업 사관학교 도입△대학 간 지역 네트워크 강화△산학협력 모델이 기술 및 현장 실습에 초점을 두는 것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창업지원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창업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단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장예령 씨는 일자리 부족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의 부족보단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오는 것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 지원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 및 산학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학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손영승 씨는 "현재 많은 학과들이 민간 기업 취업에만 힘쓰고 있다"며 순수학문 학과들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은 순수학문으로부터 비롯된단 것이다. 이어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는 정부나 대학이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교육기관인 '에꼴(école)42'를 제시했다. 에꼴42는 2013년 프랑스 기업 '프리모바일(free mobile)'의 '자비에 니엘(Xavier Niel)' 회장이 IT 산업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비를 투자해 설립한 IT 교육기관이다. 이 교육기관은 입학료나 기기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손영승 씨는 이러한 민간 기업 주도의 인재 양성 기관이 우리나라에 더욱 증가해야 한단 의견을 전했다.

◆반값 주택과 창업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글로벌캠퍼스의 학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서울캠퍼스 학생과도 높은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우리학교 학생 김준서(일본·일언문 21) 씨는 "평소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아 이번 토론이 흥미로웠고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에 큰 귀감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학교 학생 노수연(융인 21) 씨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층과 실질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는 좋았으나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청년들의 주거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청년을 위한 여러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영국 정부에선 청년을 위한 주거 급여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6년부턴 35세 이하 독신 청년층을 위한 주거 급여인 '싱글룸 렌트 정책(Single Room Rent Policy)'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지방 정부가 그 지역의 주택 임대료를 감안해 △거실△부엌△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공공주택 한 채의 임대료 적정선을 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까지만 주거 급여로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에선 △2009년△2011년△2015년 총 세 차례에 걸쳐 '혁신전략(A Strategy for Innovation)'을 발표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지원을 위해 백악관이 나서 창업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대학△민간기업△정부 부처와 협력하는 정책이다. 이 중 지난 2011년에 시행된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주도로 사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조언가를 모아 미국 내 창업가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고성장 기업 창업의 숫자와 규모를 늘리는 것이었다. 정책 시행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미국의 일자리가 1,550만여 개로 늘어났다.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시민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양날의 검 불매운동

지난달 15일 종합식품 기업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SPC 기업은 사고 발생 다음 날 같은 공장 다른 기계에서 평소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잘못된 대응으로 국민의 빈축을 샀다. 이후 분노한 소비자들이 SPC 계열 기업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불매운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한편 일각에선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불매운동의 현황과 역사△불매운동의 효과△불매운동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불매운동의 현황과 역사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SPC 기업은 사고 발생 다음 날 같은 공장의 다른 기계에서 평소와 같이 작업을 진행했고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식엔 조문객 답례품으로 빵을 보내 많은 사람의 빈축을 샀다.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SPC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사고 발생 8일 후 다른 SPC 계열사 공장에서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발생하자 불매운동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됐다.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번 불매운동은 급격히 확산돼 SPC 직영 업체뿐 아니라 가맹점 및 SPC에서 재료를 납품받는 업체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SPC 기업 계열사인 SPC삼립은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인 8,149억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의 대표 상품인 포켓몬빵의 매출이 불매운동의 여파로 대형 마트 기준 약 10% 가량 줄었다. 또한 SPC 기업의 또 다른 계열사인 파리바게뜨(Parisbaguette)의 가맹점 평균 매출은 불매운동 이후 20%에서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격이나 품질이 절대 기준이었던 기존 소비 행태와 달리 윤리적 신념이나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치소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는 물건 자체만이 아닌 해당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철학△윤리 의식△지속가능성△환경까지 고려해 소비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기업의 물건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 2020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착한 소비에 관한 인식 및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0% 이상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비윤리적이라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제품 자체가 우수하더라도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이라면 구매를 꺼린단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SPC 사고 이전에도 다양한 불매운동이 이뤄져 왔다. 1990년도에 발생한 삼양라면 우지파동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장기적인 식품 불매운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불매운동은 삼양라면이 인체에 해로운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만들었단 검찰의 발표 후 본격적인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이후 삼양라면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공장이 문을 닫는 등 회사가 존폐위기까지 몰렸다. 지난 2013년에 시작된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남양유업은 한 지역 대리점을 상대로 강매를 한 사실과 회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행한 녹취록이 함께 공개돼 거센 비난을 받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2013년도에 남양유업은 17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내에서의 불매운동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큰 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다. 지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유니클로(UNIQLO)와 아사히(Asahi) 등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두 달 만에 유니클로 매장 3곳이 폐업했고 2019년 1조 3,780억 원이었던 우리나라의 유니클로 매출은 2020년과 지난해에 각각 6,297억 원과 5,824억 원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내 일본 맥주 수입량 또한 2018년 8만 6,675톤에서 2019년 4만 7,330톤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7,751톤을 기록하며 2018년 대비 90% 넘게 하락했다.

◆불매운동의 양면성

기업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면 매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업의 평판도 자연스레 하락하게 된다. 소비자는 이러한 불매운동의 특성을 이용해 기업에 의사를 전달하고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독일제품 불매운동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사례로 꼽힌다. △벤츠(Benz)△폭스바겐(Volkswagen)△BMW는 히틀러 치하에서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전범 기업이다. 그러나 이들은 나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위기감을 느낀 독일 정부와 기업은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 보상을 했다. 이처럼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의 단합을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단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박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하 박 교수)는 "불매운동은 기업을 변화시키고 선순환을 가져오기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불매운동 확산으로 인해 가맹점주나 노동자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불매운동으로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쪽은 본사보다 가맹점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SPC 기업 불매운동의 직격탄 또한 SPC 기업 자체가 아닌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에게 향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불매운동 이후 가맹점 평균 매출이 20%에서 30%가량 줄었다. 서울시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문 앞에서 서성대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우리는 죄가 없는데 같이 벌을 받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며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 피해를 보상할 실질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8년에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존재하지만 법조계는 이 법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가맹사업법 제11조에선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가맹계약을 했더라도 가맹본부가 매해 정보공개서를 갱신해야 하기에 가맹점이라면 누구나 해당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으로 가맹점주가 배상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고 현재까지 가맹점주가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본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해 승소한 판례는 없다. 가맹점이 받은 피해와 불매운동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도에 가수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승리의 성매매 알선 논란으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가맹점주들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강성신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매출 감소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불매운동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단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조항에 명시된 위법행위의 주체가 본사가 아닌 가맹본부 혹은 본부의 임원이란 점도 가맹점주가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가맹계약서상 가맹본부는 SPC가 아닌 SPC 지주사 파리크라상(Paris Croissant Food Company)이다. 소비자는 SPC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해 그 자회사인 파리바게뜨에 불매 운동을 진행하지만 정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안전관리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파리크라상 법인에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만 규정하고 있기에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한 가맹주들의 피해를 가맹사업법으로 배상하는 건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며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그 본사까지로 규제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불매운동이 계속되며 SPC 계열사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떠나 본사가 윤리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SPC 계열사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소비자 사이에 낀 피해자다"며 "이번 SPC 사고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본사가 배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본사가 직접적으로 처벌 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란 의견도 있다. 미국은 회사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가중처벌을 받는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해지기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업이 스스로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불매운동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기업의 대표가 직접적인 처벌을 받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소비 주권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간과해선 안 된다.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불매운동으로 가맹점주의 매출이 줄거나 공장이 문을 닫는 게 아니다. 소비자는 △노동자의 인권 보장△진심 어린 사과△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개선을 이행하는 기업을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좋은 상품을 죄책감 없이 소비하길 바랄 뿐이다. 기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www.시사 한 줄 토픽.com

정치 윤석열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 가져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이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하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및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경제 우유제품 평균 가격 6% 인상, 밀크플레이션 가능성 우려돼

지난 17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대표 제품인 흰 우유 1리터(L) 가격이 6.6% 올라 대형할인점에선 2,800원대에 흰 우유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우유가 함유된 아이스크림과 빵 등의 가격이 연달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돼

지난 17일 진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50만 8,030명이 응시해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0여 개 시험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능의 국어 과목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수학과 영어는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며 작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미국 LA에서 우리나라 승무원 묻지마 피습당해

지난 15일 LA의 피게로아 거리에 있는 쇼핑몰 내 대형할인점 타깃 판매점에서 한국 항공사 소속 승무원의 칼을 가지고 있던 현지의 노숙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나라 공관은 사고 인지 즉시 영사를 병원으로 급히 파견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며 "피해자는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입원했으며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이정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 정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1.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사망△질병을 의미하죠. 중대한 산재 및 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어요. 2017년 제20회 국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최초로 입법 발의한 후 이번 해 1월 27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Q1-1.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의 예방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법률입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선 산언안전보건법상의 산재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까지 중대재해의 범위에 포함했죠. 이로 인해 경영책임자가 △관리·운영·지배하는 원료 및 제조물△공중교통수단△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단 점이 특징이에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적용하고 사업주는 안전 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선 법인과는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 등은 안전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직 내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Q2. 지난달 종합식품기업 'SPC' 계열의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PC 노동자 사망사건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달 15일 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했던 2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배경은 산업재해 이후 기업의 대처가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 등을 미루며 사고 당일에도 사업장에서 영업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사고가 난 기계로 만든 제품을 판매했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Q3.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누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돼 처벌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이하 경영책임자)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기업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란 내용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의미는 애매하죠.

이 구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인력△조직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내세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선 CEO의 안전보건 관련 발언이나 지시가 거의 없는 등 안전보건에 대해 CEO가 관심을 두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CEO가 이에 대해 언급을 하면 본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 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없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4.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청업체인 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지배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죠. 그러나 파견의 경우엔 파견법상 파견사용자인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없어요.

Q5.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을 역차별한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산재의 발생률을 보면 대기업보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인 중소영세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죠. 따라서 중대채해처벌법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영세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Q6. 영국은 '자율규제' 원칙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고자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정부가 직접 중대재해 감축에 관여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국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자율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집단적 노사관계의 역사가 짧아 자율적 규제가 정착되지 못했죠. 노사 간 자율적인 규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형사적 처벌이나 감독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Q7.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근로자△정부는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는 단순히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식이 법'의 사례처럼 형량을 높이면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선진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책임자를 무겁게 형사 처벌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따라서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안전교육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안전교육은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업 현장뿐 아니라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부터 일상화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후회없는 선택

학보사 활동을 오래 할 생각은 없었다. 처음 학보사에 들어왔을 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의 기자가 있었기에 내가 중간에 학보사를 그만둬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가볍게만 생각했던 학보사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다. 힘겹게 취재원을 구해 기사를 작성하면 바로 다음 발행될 신문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최선을 다해 쓴 제안서가 탈락한 날엔 속으로 한참을 투덜거리곤 했다.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면 바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한 해 반을 보냈다.

학보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은 많았다.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데 회의에 참석해야 할 때나 마감 날과 듣고 싶은 수업이 있는 날이 겹쳐 이를 수강할 수 없을 때, 혹은 아무리 생각해도 만족스런 제안서 주제를 마련할 수 없을 때가 그랬다. 그만둘 기회는 많았지만 그 때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학보에서 얻은 것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시간을 쏟아서 내 기사 작성을 도와준 선배 기자들에게 애정을 받았고 마감날마다 밤을 새우며 대화했던 동기 기자들에게 인생을 배웠다. 그 시간 덕에 학보사에 남아 웃으며 후배 기자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받은 만큼 학보 구성원에게 되돌려주지 못했단 생각이 들어 아쉽고 미안할 뿐이다.

매일 새로운 매체가 쏟아지는 현실 속 어떤 사람들은 글의 영향력을 등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난 글만이 가진 표현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학보 기자에 지원했고 후회 없이 기사를 쓸 수 있었다. 기사를 쓸 때마다 내 글이 소외받는 이들에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바랐다. 그 의미를 쫓는 과정에서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기자로 활동했던 학보사 생활 초반엔 거창한 주제의 기사만을 고집하며 사회 현상에 치중된 제안서를 많이 작성했다. 제안서가 탈락할 때마다 외대학보만이 가진 가치에 대해 깊이 고심했다. 주의깊게 관찰해보니 소외받는 사람은 학교란 작은 사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양한 주제로 기사를 쓰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학교 내부의 문제나 기성 언론에선 다뤄지지 않은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학교의 소수자들에게 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단 성취감이 더 크기에 후회 없이 이 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학보 소속 기자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학 생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학보사 활동이 끝난단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 어떤 활동을 해도 이 순간의 경험과 배움을 얻지 못하리란 사실을 알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독자의 자리로 돌아가 학보의 앞날을 지켜보려 한다. 앞으로의 외대학보가 걸어갈 모든 나날을 응원한다.

김하형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신화, 성경, 문학과 서양 정치사상'을 읽고]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

'신화, 성경, 문학과 서양 정치사상'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서양의 정치사상을 △문학△성경△신화에 적용시켜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다. 그중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소개하려 한다. 프로메테우스와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을 창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형태를 만들고 에피메테우스는 인간과 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부여한다.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기 전 여러 동물에게 △날개△용기△지혜 등을 선물했다. 이후 자신이 가진 자원을 모두 사용해 버려 인간에게 부여할 능력이 남아 있지 않게 되자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메테우스는 여신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후 신의 태양 마차에서 몰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게 된다. 불을 선물 받은 인간은 우월한 지위를 갖게 돼 다른 동물들을 정복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죄로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된다. 이로 인해 프로메테우스는 죽지 않고 영원히 독수리에게 파먹히는 형벌을 받는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자신의 왕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면 형벌을 끝내주겠다고 회유했지만 그는 제우스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무한한 고통을 선택한다.

프로메테우스가 보여준 절대적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태도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이런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을 주고 궁중악사로 활동하게 했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2011년 창단됐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공연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번 해엔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받아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는 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소속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신체적 어려움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회피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사람은 종종 이뤄야 할 목표와 이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고통 사이에서 고민한다. 이때 고통이 두려워 포기하는 습관이 생기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꼭 거창한 행동일 필요는 없다. 계획표에 오늘 할 일을 기록해 이뤄나가는 것처럼 사소하고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한다. 때때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작은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성취한 일들은 내일의 나를 바꾸는 큰 힘이 돼 있을 것이다.

명나디 기자 05nadi@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소셜 네트워크' 를를 보고]

성공은 대단한 이유로 시작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에 개봉한 영화 '소셜네트워크(The Social Network)'는 '페이스북(Facebook)'을 설립한 '마크 주커버그(이하 마크)'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주인공 마크는 여자친구인 '에리카 올브라이트(이하 에리카)'와 이별한 뒤 홧김에 자신의 블로그에 여자친구를 욕하는 글을 작성한다. 이후 친구 '왈도 세브린(이하 왈도)'의 도움으로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여학생들의 사진 자료를 모아 외모를 비교하는 사이트를 개발한다. 그가 만든 사이트는 대학교 전체의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순식간에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가 인기를 끌게 된다. 짧은 시간에 학교 서버를 마비시킨 마크의 실력을 좋게 평가한 윙클보스 형제는 하버드대학교 학생들만의 인터넷 소통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마크는 윙클보스 형제가 아닌 친구 왈도와 함께 페이스북을 만들길 택한다. 한편 대기업 '냅스터'의 창립자 '숀 파커'는 우연히 접한 페이스북의 파급력에 놀라며 마크를 만난다. 마크는 그에게 경영 철학과 조언을 전수 받으며 페이스북을 점차 성장시킨다. 이용자의 규모와 범위가 커지며 페이스북은 국외로까지 퍼져 지금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이 완성됐다.

페이스북은 지난 2004년 2월에 출시돼 전 세계 13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이 SNS가 처음부터 거창한 이유로 창설된 건 아니었다. 지난 2005년 4월에 출시돼 현재 전 세계 이용자가 월 20억 명에 달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YouTube)'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친구들끼리 저녁 파티를 하다가 찍은 비디오 영상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큰 성공이 꼭 거창한 목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란 사실을 보여준다. 우린 성공을 위해 대단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과 달리 성공한 사람들의 시작은 의외로 사소한 계기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레 겁먹지 않아도 된다. 그보단 사소해 보인다 해도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일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이유나 계기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가 어떤 성공을 가져다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마치 여학생의 외모를 비교하려는 불량한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가 세계 최대의 SNS로 성장했듯이 말이다. 중요한 건 그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끈기와 용기다. 성공이 꼭 대단한 이유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다. 우리도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정원준 기자 wonjun05@hufs.ac.kr

1073호 학보를 읽고

또다시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나윤(사회 · 미디어 19)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갑자기 내린 비로 낙엽이 지고 쌀쌀한 겨울 날씨가 찾아왔다. 학교에선 두꺼운 외투로 추위를 막으려는 학생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벌써 한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을 날이 찾아왔음을 실감한다. 이번 외대학보에선 한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다양한 학내외 사안을 다뤘다.

3면에선 무선 랜(LAN) 통신 기술인 와이파이(Wi-fi)의 교내 이용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공용 와이파이인 'hufs_seoul'은 노트북 절전모드 시에도 연결이 끊긴다. 수업 시간 내 자료 검색을 위해 여러 차례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접속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이 존재한다. hufs_seoul 이외에 에듀롬(Eduroam)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노트북에선 이용하기 어렵다. 에듀롬이 적용되지 않는 운영 체제가 있어 노트북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 시일 내에 재정이 확충돼 교내에서도 편리하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

4면에선 양 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생회의 요구안을 다뤘다. 성적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와 설캠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수업 시작 시각 단일화 사안 등이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현재 설캠의 수업시작 시각은 9시지만 글캠은 9시 30분으로 30분 차이가 난다. 다음 학기부터 수업 시간이 단일화 된다면 양캠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30분 차이가 나는 수업시간으로 인해 원하는 수업을 수강신청할 수 없었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단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할 것이다. 상대평가 기준 완화는 언어 학과가 많은 우리 학교 특성상 꾸준히 요구돼온 사안이다. 언어 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학점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의 언어 학습도가 달라 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 평가 방식이 우리학교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5면에선 대학의 에너지 남용 문제를 다뤘다. 노후화된 건물은 냉·난방을 할 때 새로 지어진 건물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해당 문제를 단순히 에너지 소비가 많단 측면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보완할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각심을 갖고 쉽게 노력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에너지 소비 감소를 실천해야 할 때다.

7면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안의 찬반 논의가 담겼다. 현재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고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교부금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개편안을 반기고 있다. 반면 시·도 교육청에선 초·중등 교육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라며 이를 반대했다. 국회에서 이번 논의가 잘 마무리돼 교육계의 재정 안정화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

교육 문제와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안에서 안정적인 재정이 바탕이 돼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기사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언론도 재정적 안정성을 갖춰야 좋은 저널리즘(journalism)을 실천할 수 있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지원과 학생들의 관심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기자가 건강한 저널리즘을 만든단 말이 있다. 외대학보 기자들이 건강한 기사를 작성해 건강한 저널리즘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1073호 학보를 읽고

세상이 얼어붙지 않길 바라며

김현익(공과 · 컴전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겨울이 밀물처럼 쓸려오고 있다. 늦게나마 가을을 눈에 담으며 월동을 준비하고 있다. 외대학보 1073호에선 우리학교의 다양한 문제 중 시의성 있게 바라봐야 할 사안들을 다뤘다. △양캠퍼스 총학생회 요구안△학내 와이파이 사용 문제△학내 에너지 과소비 문제 등 학생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내용이 주를 이뤘다.

3면에선 학내 구성원들이 무선 랜(LAN) 통신 기술인 와이파이(Wi-fi)를 사용하며 발생했던 불편 사항에 대해 주목했다. 해당 문제는 비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가 혼재된 과도기 상황에서 비롯된 문제다. 지난 학기까진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학부 수업을 학교 밖에서 비대면으로 수강했지만 이번 학기엔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됐기에 재학생의 학내 와이파이 접속률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했다. 비대면 강의가 모두 사라지면 극복될 문제지만 중요한 건 불편함을 겪는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신속한 대처다. 추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과 긴밀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

4면에선 양 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요구안의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다뤘다. 학생총투표와 정기총회는 총학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의 목소리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이번 양캠 총학 요구안으로 상정된 △계절학기 등록금△성적평가 방식△학부 수업 시작 시각 변동의 문제는 학생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변화에 동참해야 할 안건이다. △교수△교직원△학생 모두가 만족할 학교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5면의 학내 에너지 과소비 문제는 학교의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인지 부족을 제시한 기사였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성을 위해 매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갱신하는 만큼 에너지 절약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학교를 비롯한 대부분 대학의 학내 에너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건물별 사용량을 따로 측정하지 않기에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단 문제점이 드러났다.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마련하기 위해 기사에서 학생 차원의 행동 방안을 다른 대학교나 국가의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다룬 7면의 기사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이 잘 정리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사였다. 교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계속 증가될 구조이기에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대학의 재정과도 관련돼 있기에 우리학교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늘어난 사망자 수를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슬픔을 마주할 적절한 방법도 찾지 못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인 만큼 비애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다가왔다. 고통 곁에 오래 서서 그들의 자리를 오래도록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겨울이 와도 세상이 얼어붙지 않길 바란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외대학보만이 전할 수 있는 가치

외대학보는 가장 중대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학내 문제들과 그림자에 가려졌던 깊은 문제를 꺼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치열하게 노력한다. 그것이 대학언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자 외대학보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학내사안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겼던 사안에 의문을 던져 본질을 파악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1074호엔 △미비한 계절학기 강의 개설△우리학교 재정난△학과마다 상이한 졸업요건과 기준 등 평소 우리가 궁금증을 가졌지만 그 원인과 현황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뤘다.

우리학교는 계절학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2019년 기준 △간호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 등 특수 학과를 제외한 63개의 학과·부 중 30개의 학과가 계절학기를 개설한다. 전체 학과의 약 57%가 계절학기를 개설한단 것이다. 반면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10%를 웃돈다. 계절학기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된 문제다. 매 학기마다 계절학기 개설 희망 과목에 대해 수요조사를 시행함에도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단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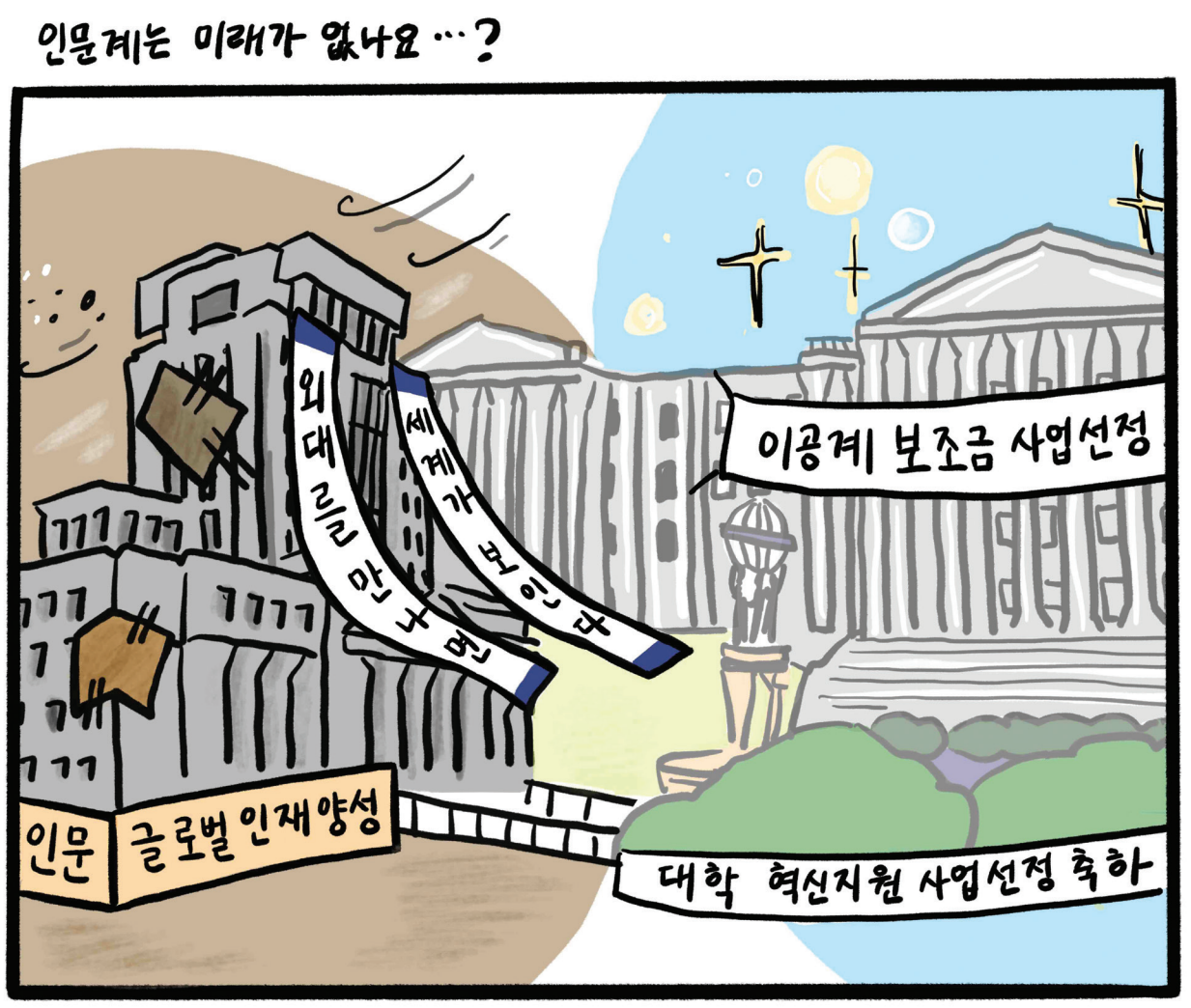
우리학교의 재정여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대두된 문제다. 지난 외대학보의 수많은 기획 기사에서도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학교의 재정난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학생 프로그램 감소△미비한 시설 개선△활성화되지 않은 장학금 등 학생들이 우리학교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언급될 때마다 학교는 재정난이 원인이라 일축하며 베일에 쌓여있는 원인을 더욱 감추기에 바빴다. 사실 사립대학의 불안정한 재정 문제는 비단 우리학교만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문제를 밝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보다 등록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기에 다른 대학에 비해 심각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우리학교가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난은 꼭 해결돼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는 졸업 기준에 대해 각 학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를 관리하고 견제할 수단도 미비하단 점도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우리학교가 언어의 강점을 가진 학교이기에 높은 졸업 어학수준을 요구한단 점은 이해하나 이에 대한 구제 방안과 차선책이 없는 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졸업과정은 학생들에게 기억될 학교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다. 학교생활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들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항상 그래왔듯 이번 1074호를 준비하며 외대학보만이 전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하나의 기사, 하나의 호를 완성하기 위해 12명의 외대학보 기자들은 오늘도 발로 뛰고 있다. 그 고민과 기자들의 열정이 외대학보 독자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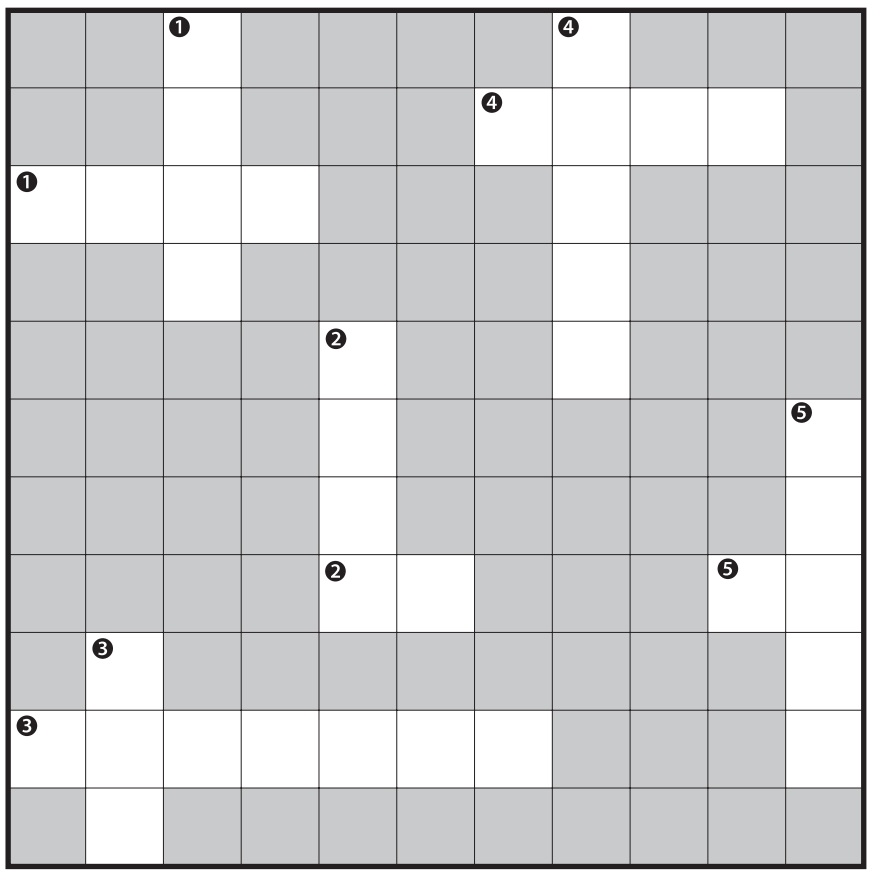
양채은 부장 03chaeeun@hufs.ac.kr

외대만평



변은서(서양어 · 스칸어 18)

십자말풀이



가로

1. 학과간 존재하는 계절학기 강의 개설의 차이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 강의 개설 기준을 공개해야 한단 목소리 존재한다. (4면 참조)
2. 그런데 비교적 정직한 재현 방식으로 알려진 사진의 경우 어떤 이미지는 인종적 편견을 부추기고 ○○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존엄을 침해하기도 한다.(11면 참조)
3. ○○○○○○○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9면 참조)
4. 졸업 ○○○○과 외국어 인증은 학교 공통 졸업 요건이지만 졸업 시험 및 졸업 논문은 학과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5면 참조)
5. 쥐스킨트는 독일어 언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이지만 △구텐베르크 문학상△투칸 문학상△F. A. Z 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 수상을 ○○하고 인터뷰와 사진 찍히는 일조차 피하며 오직 작품을 통해서만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6면 참조)

세로

1. ○○○○는 가장 중대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학내 문제들과 그림자에 가려졌던 깊은 문제를 꺼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노력한다.(11면 참조)
2. 소비자는 이러한 ○○○○의 특성을 이용해 기업에 의사를 전달하고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8면 참조)
3.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월세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단 것이다. (7면 참조)
4. 해당 포럼은 ○○○○○ 언어권 국가들과 국내외 연결망을 공고히 하고 특수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2면 참조)
5. '○○○○○' 이란 말인데 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단 의미입니다. (12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말의 혼란, 정치의 실종, 정명(正名)의 길

언론 보도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어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알림으로써 지금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여 세계를 더 낫게 만들려는 지향이 언론의 영역에 있는 카메라와 기자가 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모든 사건의 현장을 다 알지 못하니까 말이다.

이 세계의 비참과 가난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난한 이들을 돕게끔 하는 것도 보도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런데 비교적 정직한 재현 방식으로 알려진 사진의 경우 어떤 이미지는 인종적 편견을 부추기고 동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존엄을 침해하기도 한다. 굶주린 아이의 앙상한 팔다리, 아픈 아이의 늘어진 몸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과장된 연출이 동원되기도 한다. 카메라가 응시하는 대상에 대한 연민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때 우리는 이를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라 부른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타인의 비참을 재현하는 것으로 '빈곤 포르노'는 사회적, 미학적, 학문적으로 정착된 개념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관음증적 관심을 드러내는 출판물이나 방송을 일컬어 비판적으로 쓰인다.

최근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해외순방에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이 나왔다. 심장병에 걸린 아이의 가련함을 부각한 사진은 특정 방송사의 카메라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이기에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보도 자체의 목적보다는 빈곤과 의료문제에 관심을 둔 여사의 활동을 알리는 이미지 정치의 일환이었다. 아이를 돕고 싶다는 뜻은 분명했으리라. 다만 그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할 때, '포르노'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하여 여성혐오니 반여성적인 발언이니 하는 것은 단어가 개념화되는 과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한 여당 의원은 그 말이 여사를 부정하다고 낙인찍는 인격 모독이라 주장하기도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포르노의 탄생에는 분명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반여성적인 역사가 자리한다. 하지만 '빈곤 포르노'라는 말은 여성혐오가 아니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포르노그래피는 매우 문제적인 개념인데, 현대에는 즉각적인 만족을 만들기 위해 선전하는 경향으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폭넓게 쓰인다. 이 세계의 폭력과 가난을 극적으로 노출하여 반복적인 관음증을 낳는 소비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정착된 '빈곤 포르노'는 타인의 내밀한 부분을 허락도 없이 파고 들어가는 시선이 갖는 폭력성과 외설성을 비판하고 시선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윤리적인 권리를 확보해주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애도와 연민, 분노를 감정적으로 휘발하려는 시도는 손쉽게 관음증적 시선으로 바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진의 경우 도움 받는 대상의 현실의 비참을 가련하게 비추고 도움 주는 자를 박애주의자로 연출한 의도가 보인다. 자기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면서 아이를 수동적인 시혜 대상으로 재현하여 편견을 확산시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착취다. 비참과 연민의 대상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키고 무분별하게 소비되게끔 하는 것은 그 대상을 폭력적으로 전유하는 일이기에 인권 감수성에도 맞지 않다. 2020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의료지원은 현저히 낮은 축에 속한다. 과도한 이미지 정치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료지원을 할 일이다. 무지한 정치가 불필요한 논쟁을 낳고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뜻한 문제의식까지 희석시키는 현장이 안타깝다.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부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정치 현장은 말의 혼란과 무의미한 논쟁 속에서 정작 중요한 쟁점들이 사라진, 그야말로 정치가 실종된 파국의 현장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교육 현장의 위기, 노동의 위기,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등 모든 국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입법과 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치는 그런 현실에 대한 건강한 대안을 말하지 못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말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자극적인 논쟁만 벌인다. 언론의 자유가 시험대에 오르고, 국민들은 인간의 가치가 지워지는 사회적 참사와 책임 없는 정치 속에서 분노하고 지쳐간다. 권력이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지고 정당한 방식으로 일을 하려면 정명, 즉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명의 길은 모든 정치의 기본이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 자신의 자리에 적합한 책임을 지는 정명의 정치를 보고 싶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3raesan@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장래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우리나라 바둑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는 한해원 바둑 기사를 만나다

한해원(중국 · 중국어 01) 바둑기사(이하 한 기사)는 지난 1998년 한국기원 소속으로 프로에 입단해 △제1기 여류명인전 본선△제1회 흥창배 세계여자바둑대회 본선△제5기 여류국수전 본선 출전 등의 이력을 가진 바둑기사다. 한 기사는 지난 2005년 'KBS 바둑왕전' 진행자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바둑 관련 활동 이외에도 △고부스캔들△여보세요△아침마당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바둑과 방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 기사를 만나보자.

Q1. 바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둑 학원과 태권도 학원을 고민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바둑을 권유받아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바둑을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나 바둑계 내에서 초등학교 4학년은 바둑을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에 속했기에 프로기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둑을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으로 프로 입단에 도전하게 됐어요.

Q2. 우리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에 입학하기 전 중국 바둑기사인 '루이나이웨이(芮乃偉)'가 세계 여자 바둑계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바둑 실력뿐만 아니라 성품 측면에서도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중국어에 대한 호감이 생겼어요. 또한 바둑이 한자와 연관이 많은 것도 우리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 중 하나입니다. 예전 바둑 교재는 대부분 중국어 혹은 일본어로 쓰여 있어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 바둑을 원활히 공부할 수 있었죠. 다른 대학에도 중국어과가 존재했지만 외국어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 우리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했습니다.

Q3. 대학 시절 경험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학과 활동인 중국원어연극회가 큰 도움이 됐어요. 연극을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 더불어 발성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점들은 제가 방송 생활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죠. 또 1학년 때 기우회 활동도 했어요. 졸업한 이후에도 동아리방을 몇 번 방문했죠. 기우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전에도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경우가 많았어요. 기우회에서 새롭게 알게 돼 현재까지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Q4. 바둑 대회와 같이 큰 대회를 앞뒀을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프로 입단 직전엔 프로가 되기 위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가 되고 나선 경기의 승패보다 바둑에 여유롭게 임하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제가 우리학교 중국어과를 다니며 배운 말이 있어요. '유수부쟁선(流水不爭先)'이란 말인데 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단 의미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란 뜻이에요. 현재는 다른 바둑 기사들에게도 이 격언을 알려주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길 권하고 있어요.

Q5. 바둑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두는 수에 이어지는 상대의 수까지 예상하는 수읽기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고 절대적인 수를 3수 이상 읽을 수 있으면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죠. 프로기사들은 확실한 절대 수순을 2~30수씩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읽기는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죠. 또 다른 매력으론 복기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수를 두는 건 늘 이유가 존재합니다. 복기를 통해 대국을 할 때 읽지 못했던 수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실수를 개선할 수 있어요. 이처럼 자신의 수를 복기하는 태도는 바둑에서의 실수 개선은 물론 인생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Q6. 2016년 이세돌 9단이 바둑 전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결에서 4대 1로 패배하며 전 세계 바둑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알파고의 등장 이후 우리나라 바둑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인공지능 때문에 바둑계가 침체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바둑과 인공지능이 상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많은 기사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바둑을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퇴에 가까운 나이가 되며 승부에서 멀어지고 있었으나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시 바둑을 열심히 공부한 뒤 활동을 재개한 기사도 여러 명 있어요. 또한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짝을 이뤄 대국을 진행하는 등 흥미로운 형태의 시합들도 많아졌죠. 인공지능도 계속 진화하면서 바둑계가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Q7. 지난 4일 최정 9단이 삼성화재배의 결승에 진출하며 여성 기사 최초의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 진출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둑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여성 기사의 활약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엔 여성 바둑기사를 뽑는 기회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에 반해 요즘은 여성 바둑기사가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이에 여성 기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전도 많이 늘었죠. 여성 기사들의 대국 기회가 늘다 보니 여성 바둑기사들의 실력도 전체적으로 향상됐어요. 여성 기사가 바둑계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 9단이 삼성화재배의 결승에 올라간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최정 기사뿐만 아니라 김채영 기사와 오유진 기사 등 우리나라의 많은 여자 바둑기사가 활약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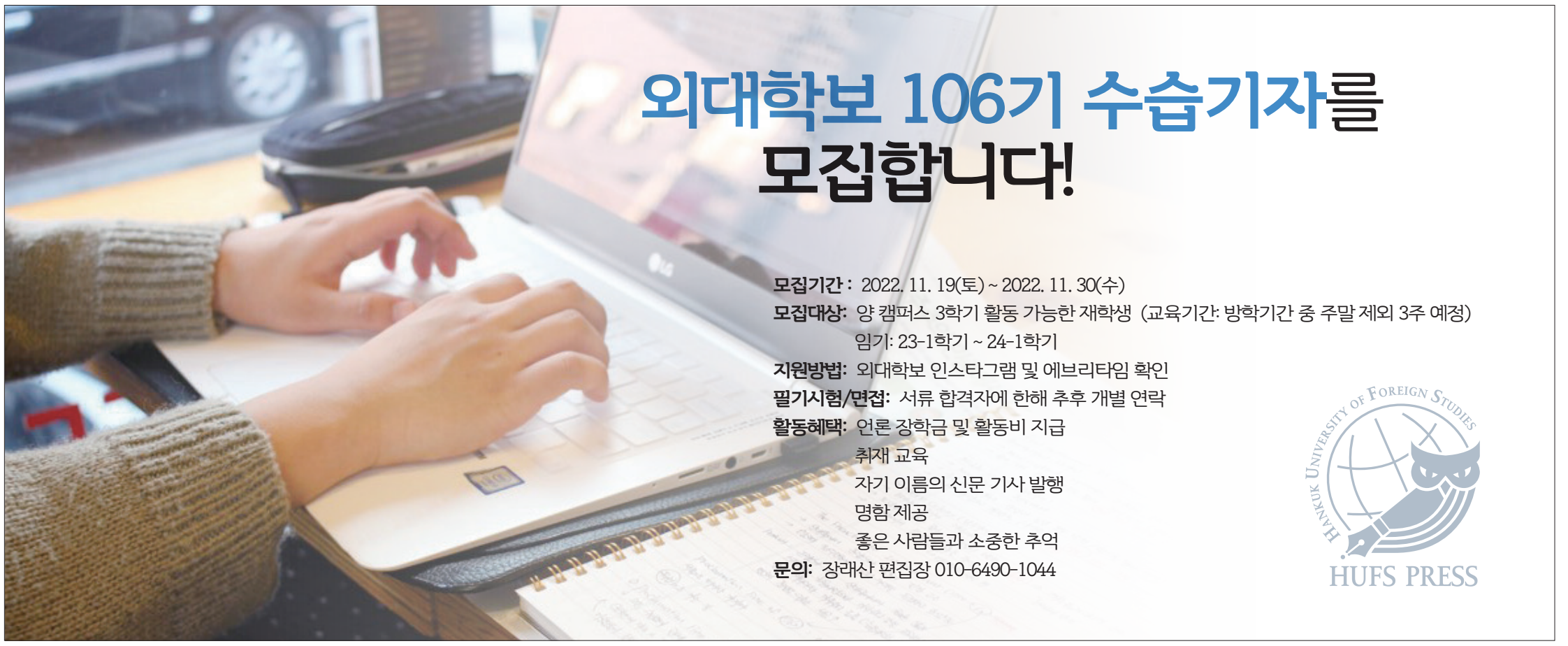
Q8. 바둑계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송을 통해 바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면 바둑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생각에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바둑을 통해 얻었던 깨달음을 방송에서 재밌게 표현하는 데에 집중했죠. △고부스캔들△여보세요△아침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둑의 매력에 대해 알기 쉽게 표현하고자 노력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에서 바둑에 관한 이야기를 다채롭게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에요.

Q9. 바둑업계 종사자로서 앞으로 기사님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바둑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바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바둑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엔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최되는 '아름바둑' 대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바둑을 전파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 틈틈이 바둑 용어를 영어로 공부하고 있죠.

Q10.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바둑의 장점에 대해 홍보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바둑의 장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둑은 실생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소개했던 수읽기와 복기 등 바둑을 두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잘 이용하면 자신이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마음가짐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바둑을 둘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득탐승(不得貪勝)'이란 격언이 있어요. 승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승리를 놓치게 된단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격언은 삶을 사는 데도 중요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죠. 최근엔 인터넷에 다양한 바둑 강좌가 잘 정리돼 있어 초심자도 바둑에 쉽게 입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학교 후배들이 바둑에 관심을 가져보길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어요.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